

신당 점화 천정배...진화 나선 문재인

千 “조만간 비전 말하겠다” 창당 임박 시사

文 “범야권 힘 합쳐 총선 임해야” 대통합 카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신당 행보를 점차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대통합 카드를 내밀고 있어 주목된다.

천정배 의원은 2일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 “조만간 신당이 왜 필요하며, 비전과 가치가 뭐지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려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신당은 온건하고 진보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보수를 아우르고 근본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중도보다는 중용이라고 부르려고 싶다”고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신당 창당 준비 및 인재 영입 등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현역 의원 중 저와 문제의식이 비슷한 분들이 많다.

심지어 새누리당 의원 중에도 꽤 그런 분들이 많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천 의원은 “공천 탈락이 염려돼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분들은 ‘노생규’라고 하고 싶다”며 “(신당을) 함께 할 사람은 혁신성이나 헌신성, 개혁성이 중요하다. 법조인 뿐 아니라 혁신 경제를 이끌 기업가나 청년지도자 등이 두루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새정치연합 탈당을 시사한 박주선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이 현실화될지 잘 모르겠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표나 특정 세력을 반대해 신당을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일정 정도 거리를 뒀다.

이와 관련, 주승용 최고위원의 복귀 등으로 내부 전열을 정비한 문재인 대표는 대통합론으로 신당 창당의 바람을 잠재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 대표는 지난 1일 광주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4월 재보선에서 천정배 의원을 크게 끌어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문 대표는 “이제는 통합, 단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천정배 의원, 정동영 전 장관도 함께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다”며 이들에게 ‘러브콜’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7·30 재보선 당시 광주시장 공천에서 배제돼 탈당한 이용선 전 의원을 최우선 복당 대상으로 꼽기도 했다.

문 대표는 “신당이 2~3%의 지지도만 잡아먹어도 수도권 등 박빙 지역에서 승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범야권이 함께 힘을 합쳐 총선에 임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대통합’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내 반응은 시큰둥하다. 철 지난 ‘대통합’ 카드도 당을 떠난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의 복귀를 이뤄 내려하는 것은 현실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문 대표가 이날 간담회에서 ‘천노 패권주의는 없다’며 사퇴론과 분당론에 대해 ‘지도부 흔들기’라고 밝힌데 대해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주류 측의 반발이 이어지는 등 여진이 나타나고 있다.

비주류 진영의 모 의원은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주류 진영의 아무런 헌신없이 허울좋은 대통합만 내세우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며 “대통합을 하려면 민심이 동의할 수 있는 자기 희생과 결단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당 혁신 실패...이대론 총선 어렵다”

안철수 전북대 좌담회

“당의 혁신은 실패했다. 낡은 진보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재를 수혈해 근본적인 성찰과 커다란 변화를 이뤄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2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채수찬 교수와 함께 ‘공정 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서 소속당인 새정치연합의 혁신 실패를 신랄히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좌담회에서 정치개혁과 새정치연합의 혁신에 관한 기초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저성장의 늪에 빠졌고 양극화가 심화하는 등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이는 능력 없는 박근혜 정부의 한계이지만 더 큰 문제는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야당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2017년 정권 교체도 어렵다”며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가 거의 없다. 과거 타성과 현재 기득권에 연연하며 진정한 자기 성찰과 쇄신 없이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실패한 당 혁신을 이루려면 당 체질 개선과 낡은 인식, 낡은 정치행태와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는 많은 부분이 달라도 하나만 같은 힘을 모으지만 진보는 ‘대부분 같아도 하나만 다르며 적으로 여긴다’는 말이 있다”며 “배타주의와 증오를 버리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다. 낡은 진보를 청산하는 것이 당 혁신의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김무성 ‘까꿍’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5가정 어린이집 보육인대회에서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서로에게 ‘까꿍’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국가정당 창당 광주 설명회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공동대표 이상이 제주대 교수)와 광주복지국가소사이어티(상임대표 이종범 조선대 교수)는 2일 광주시의회에서 복지국가정당 창당과 관련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엔 신필균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광주지역에서는 5·18관련 주요 3단체 회장과 여성단체 등의 단체와 노회관 전 전남대 교수 등 40여 명의 시민사회 원로들이 참석했다.

이상이 교수는 이날 설명회에서 “현재의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라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는 공정한 기회균등과 정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기에 양극화와 차별 없는 ‘복지국가 정당’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복지국가 정당은 정체성을 기준으로 정책과 인물을 평가하고 선택한다. 내년 총선에도 전국적으로 후보자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노동개혁·교육감 직선제 개선”

김무성 새누리 대표연설...“국민공천제 도입 대표회담 열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하는 협박한 작업으로서 모든 개혁의 기초”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4대 개혁(노동·교육·금융·공공)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의 목표로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정성 등을 제시한 뒤 “30~40년 전 연공서열제, 호봉승급제 등 임금체계의 불공정성은 직무·성과 중심의 선진 체제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 개혁과 관련, “정치적 편향성,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의 남발로 교육정치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면서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이 필요한 만큼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 교육감 선출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또 “역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한다”면서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그는 정치 분야에서는 자신이 ‘국민공천제’로 명명한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정당 민주주의의 완결판’으로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으로 지적되는 보스·계보정치, 총성서약 정치를 일소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처방은 국민공천제”라고 전체 한 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대표회담을 이르면 시일 내에 열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 본법·국제의료사법지위법·관광진흥법 등 현 정부가 경제활성화의 근간으로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야당이 뽀니를 부리며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20대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비능률적인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통일을 달성한 서독도 통일 이전 10년간 매년 100억 달러(12조원)의 통일비용을 비축했다”면서 “통일자원을 마련해나가는 방법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의회 임사회 개최

광주시의회는 2일 제241회 시의회 임시회를 개최, 오는 10일까지 9일간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는 감사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상임위원로는 ▲행정자치위원회 10건 ▲환경복지위원회 4건 ▲산업건설위원회 6건 ▲교육위원회 3건 등이다.

전남도의회는 4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을

로 제298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회기 중에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 중 안건은 모두 18건으로 ‘영세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촉구 건의안’, ‘전라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또 이번 회기에서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도 승인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지방정가

유정심 의원 “친일 잔재 전수조사 나서야”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일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일제 잔재에 대한 전수조사와 연구·활용 방안 논의를 위해 시청과 교육청, 시민사회, 연구기관이 함께 하는 민관 합동 거버넌스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위원장은 해방 70주년이 됐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있다고 협의체 구성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다. 유 위원장은 광주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로 광주공원 내 설치된 율동렬 등 친일 인사 비석 집단에서부터 시작공원 주변 방공포대, 금교 등을 거론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세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1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교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찰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